

## 평론

25년 전 나는 이미 최예태 화백의 미술세계를 그 당시 연재하던 신문과 라디오 방송에서, 한국의 구상 미술화가 중 가장 앞선 인물로 소개한 바 있다. 몇몇 한국 화가들의 프랑스에서의 이십여 회와 전시회에 이어, 얼마 전 그의 중요하고도 아주 특별한 전시회를 볼 수 있었다.

파리는 최예태 화백에게 그리 낯선 도시는 아니다. 그는 Academie de la Grande Chaumiere에서 몇 년간 유학했고, 프랑스 구상미술의 대가 중 한 명인 Yves Brayer의 제자였다. 그는 내게 최예태 화백의 탁월한 재능과 열정에 대해 칭찬을 하고 했었다. 다른 프랑스 화가들, 아마추어, 그리고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1980년 Salondes Artistes Francais와 1990년 Salon d'Automne에 출품한 그의 작품에 크게 주목을 했었다.

드디어 2001년 6월 La Grande Ombre et Lumieres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최예태 화백의 독창적인 재능을 진정으로 발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는 풍경, 인물, 꽃, 누드 등 5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는데, 그의 무궁한 영감의 세계와 매혹적인 독창성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게다가 최예태 화백의 사물, 꽃, 정물의 구성은 고요의 섬세함을 증명하고, 특히 그의 정물 세계는 음악의 향기까지 배어 있는 듯 하다. 마치 모차르트의 음악에 신의 음성이 스며 있듯이...

또한 풍경 화가로서의 최예태 화백은 웅장한 건축물의 창조자이다. 그는 산이라는 평범한 주제를, 뛰어

난 관찰력으로, 품위 있고 환상적인 매우 보기 드문 수준으로 표현했다. 내 견해로는, 한국의 화가들은 그들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가을빛과 겨울의 줄리온 듯한 나른한 분위기, 그리고 또 봄의 잔잔한 빛으로 표현하기를 즐기는 듯하다. 하지만 최예태 화백만큼 한국인의 정신과 자연의 조화를 매우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화가는 아주 드물다. 내가 여기서 환희, 매혹, 그리고 경탄함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최예태 화백의 구상 작품들 속에는 뭔가 다른 특별한 것이 있다. '실내의 여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의 구성은 영혼의 평화의 몽상을 가진 아주 개인적인 은밀함을 여인들의 우아함과 누드화에 옮겨놓았기 때문이다. 표현력 있는 여인들을 다룬 작품도 있지만 자주 등장하는 여인들은 자못 정숙하다. 하지만 그녀들은 보기 드문 색채와 마치 한국의 연한 초록빛을 발산하는 듯한 아주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최예태 화백처럼 뛰어난 화가를 알게 된 것이 나에게 여간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또 그림 그리기는 스케일을 떠나서라도 열정과 시적 감각의 행복한 연결인 그의 작품 세계에서, 나는 특별하고도 분명한 그만의 신선함 영감에 크게 감동해 마지않는 바이다.

파리, 2001년 7월 *Rosier Bouillot* (미술평론가)



## 蔚林 최예태

- 1939년 4월 2일 출생
-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서양화 전공
- 파리 아카데미 드라그랑드쇼미에르 수업
- 퀘벡 유니버시티 조형미술 전공

- 2015년 성신여자대학교 최예태 미술관 설립
- 국전 추천작가, 동 초대작가
- 캐나다 퀘벡주 한인미술협회 회장 역임
- 한국미협 군사지부장 역임
-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장, 동 운영위원장
- 96회화제 대표 · 미술과 비평 아트페어 대회장 역임
- 나혜석 전국 공모미술대전 대회장 역임
- 2007년 마니프 한국 구상대제전 조직위원장
- 2011년 SAAF 조직위원장
- 그루지아 국립미술관 초대 한국현대미술제 대표

- 중앙대 · 원광대 · 예원예술대 대학원 강의
- 성신여자대학교 특강

- 마니프 한국 구상대제전 특별상 수상한국예술상 수상
- 대한민국 미술인 특별상, 장리석상
-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대한민국한류문화대상 수상
- 대한민국 창조문화대상 수상

## 현재

- 사)한국미술협회 고문, 군사지부 고문
- 국가 보훈 문화예술협회 상임고문
- KAMA 한국현대미술가협회 회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발이봉남로 4번길 8, 301호(수내동)  
전드화 \_ 031) 716-5745   핸드폰 \_ 010-6272-6038  
이메일 \_ cyetae@hanmail.net   카드페 \_ http://cafe.daum.net/cyetae

군산근대역사박물관  
GUNSAN MODERN HISTORY MUSEUM

군산시 해망로 240 [장미동 1-67]   T.063)454-7870   F. 063)443-8284  
museum.gunsan.go.kr [Pc]   mum.gunsan.go.kr [Tablet Pc]

# 매혹적인 영감의 색채

蔚林 최예태 근작전

2016.10.31 ~ 2017.1.30  
군산근대미술관



붉은산의환타지 mixed media 30F 2016

군산근대역사박물관  
GUNSAN MODERN HISTORY MUSEUM



# 매혹적인 영감[靈感]의 색채

## 모시는 글

풍요로운 항구도시 군산의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즈음 군산근대미술관에서는 군산이 낳은 화가 최예태 화백을 초대하여 화백이 걸어온 60여년의 위대한 회화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최예태 화백은 프랑스, 캐나다를 중심으로 작품 활동을 해왔고 현재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여 청년 못지 않은 열정을 가지고 그의 작품세계를 펼쳐가고 있으며, 한국미술협회고문, 그루지아 공화국 국립미술관 한국 현대미술제 대표로 활동 중이고, KAMA(대한민국 현대미술가협회)를 이끌어 외국교류전(展)도 활발하게 전개하는 등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예술혼을 알리는 전시 또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대한민국 미술인 특별상 장리석상 과 대한민국 창조문화예술상을 수상하였으며, 성신여자대학교에는 최예태 미술관이 설립되어 상시 작품을 만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시간과 세월을 거스르듯 그는 현재도 많은 양의 작업시간에 몰두하고 있으며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단순히 예술작품의 감상을 넘어서 우리 군산 출신화가의 창작의 역작을 통하여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다시 한 번 느껴보고 많은 시민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산근대미술관 전시에 흔쾌히 응해주신 최예태 화백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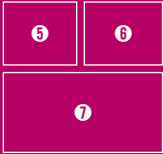
군산시장 문 동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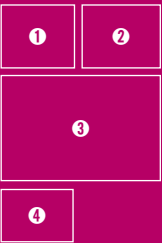
마이산의정경 50P oil on canvas 2015



# 매혹적인 영감[靈感]의 색채



- ① 붉은벽돌집의인상 15F mixed media 2016
- ② 태양을삼킨여인 100F mixed media 2016
- ③ 몽환적사유 50F oil on canvas 2016



- ① 붉은산의페스타 15F mixed media 2016
- ② 울산바위 100F mixed media 2015
- ③ 독도여명원하라 30F mixedmedia 2016
- ④ 스와네티 타워 50F oil on canvas 2015

